

바리신화 ‘古典化’ 과정의 사회적 맥락*

이경하**

1. 바리신화는 어떻게 ‘고전이 되었나?’
2. 고전으로서의 가치 재발견 과정
3. 고전으로서의 위상 강화 배경
4.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바리신화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자리매김 되어가는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사무가 <바리공주/바리데기>가 20세기 후반에 대표적인 한국의 신화로 재평가된 현상은 하나의 텍스트가 한 사회의 가치 있는 고전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바리신화에 내재한 어떠한 요소가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이었다.

바리신화의 고전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1960~70년대에 전통과 민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무가와 같은 구비문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둘째, 1980~90년대에 강하게 불었던 페미니즘의 열기 속에서, 바리신화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학계와 예술계에서 동시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여주인공이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된 존재를 상징한다는 점, 무가치하다고 버려진 딸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진다는 점, 그리고 굿과 무가라는 여성 젠더화된 문화형식. 이러한 바리신화의 내적 요소들이 페미니즘과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재독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바리신화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이는 바리신화의 고전적 가치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고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리신화가 출판물, 공연물, 영상물 등으로 활발하게 재창작되고 있는 배경으로서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흥기를 지적하였다.

핵심어 : 바리공주, 바리데기, 고전, 전통, 페미니즘, 교과서, 문화콘텐츠

1. 바리신화는 어떻게 ‘고전’이 되었나?

<바리공주/바리데기>는 민속학, 구비문학, 비교신화학, 종교학, 교육학, 페미니즘, 현대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텍스트이다. 직접 관련된 논문만 200편이 훨씬 넘는다. 이 바리신화¹⁾는 더 이상 서사무가라는 ‘옛 것’으로서의 고전에 한정되지 않고,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고 21세기 문화콘텐츠 사업이 주목하는 원천콘텐츠로서 ‘고전(classic)’이 되었다. ‘고전문학’이라고 했을 때 고전은 시간상 과거의 것, 근대 이전 시기의 산물을 지칭한다. 반면 ‘classic’으로서의 고전에는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란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전(cannon)’ 개념과 상통한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전 비판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정전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그 자체의 내적 가치에 의해서라기보다 특정한 환경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²⁾ 그런데 정전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자

1) 본고에서는 이 서사무가의 대표 제목인 <바리공주>와 <바리데기>를 통칭하여 ‘바리신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서울본을 중심으로 한 <바리공주>와 동해안본을 중심으로 한 <바리데기>는 주인공의 성격과 서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바리공주>가 무조신 혹은 저승신 바리를 통해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을 풀어가고 있다면, <바리데기>는 버려진 딸 바리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 영문학사에서 정전으로 간주된 작품들은 백인우월주의, 엘리트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의 가

첫 정전 혹은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의 가치를 완전히 날조된 허구로 과장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하나의 작품이 고전 또는 정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그 작품에 내재한 어떤 요소가 외적 요인과 맞물렸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전은 구성되고 창조된 것이지만, 순전히 날조되었다기보다는, 그 텍스트의 어떤 내적 요소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재해석됨으로써 그 가치가 발견된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리신화가 20세기 후반에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자리매김해 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목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무당의 노래 바리신화가 불과 20~30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신화로서³⁾ 고전의 지위를 확고하게 얻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바리신화에 내재한 어떤 요소가 어떠한 정치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재해석되고 재평가되었는지, 그 사회적 맥락을 여러 층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고전으로서의 가치 재발견 과정

2.1. 한국적 전통이란 화두

바리신화가 고전화되는 사회적 맥락 가운데 첫 번째로, 1970~80년대에 사회 전반에 불었던 한국적 ‘전통’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민족’ 또는 ‘민중’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한동안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갖는 독자성과 가치를 선양하

치를 대변한다고 비판되었다.(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문제에 대하여』, 민음사, 1997) 헤이안 시대의 여류일기문학이 20세기 일본문학사 서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정전이 구성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엮음, 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94면)

3) 한국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리신화에 대해 “이것이 바로 신화”라고 극찬한바 있다. 신동훈, 『살아 있는 우리 신화: 우리 신들의 귀환을 위한 이야기 열두 마당』, 한겨레, 2004, 89면;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156면.

는 일대 국가적 기획이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시기였다. 특히 70년대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학 진흥을 고취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기구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1973년 10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3~1978)을 확정하였는데, 그 목적은 민족문화의 재발견과 창조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데 있었다. 이른바 문예진흥선언을 통해,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고 천명하였다.⁴⁾

정부의 그러한 방침은 학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민속 현지조사, 무형문화재, 국악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한 지원이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란 명분을 내걸고 실상은 ‘국가에 봉사하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1972년에 제정된,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을 대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계승과 창조, 민족문화의 증흥을 운운하지만, 결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념적 통제와 감시가 이 법의 실질적인 역할이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때문이 아니라도, 학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70년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전통을 ‘과거에 대한 인식’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수용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힘’이라고 이해할 때,⁶⁾ 무엇을 한국적 전통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과거성과 함께 과거의 현재성에 대한 가치판단일 것이다. 전통의 수립과 계승은 과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때로 전통의 날조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였고,⁷⁾ 한국의 과거를

4) 김미도, 「전통의 현대화, 뮤지컬의 형성」, 『한국현대연극 100년: 공연사Ⅱ(1945~2008)』 (한국연극협회 편), 연극과인간, 2008, 227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창작·보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예진흥을 이룩한다’는 목적 하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것도 1973년의 일이다.

5) 박명진, 「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극제도」, 『1970년대 희곡 연구 I』, 민족문화사연구소 희곡분과 편, 2008, 34면.

6) 오세영, 「전통이란 무엇인가」,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박노준·이창민 외), 열화당, 1998, 10~16면.

7) 에릭 홉스봄 저,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학 전공자들과 전통의 재창조를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이었다.

국문학계에서 문학사 서술이 가장 열기를 띠었던 것 역시 이 시기였다.⁸⁾ 앞선 시대 문학의 어느 측면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문학 전통의 계승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에서,⁹⁾ 문학사 인식에 있어서도 전통은 중요한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19~20세기 국내외 자국문학사 서술에서 민족 문학의 전통 수립에 관심을 기울였듯이, 20세기 후반 소수집단의 문학사 서술에서도 역시 그들의 독자적인 문학적 ‘전통’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¹⁰⁾

‘민족과 ‘민중’ 두 키워드를 공유하는 구비문학 연구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구비문학에 대한 기본 관점과 범주, 연구 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되는¹¹⁾ 등 구비문학 연구가 한국고전문학의 한 분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바리신화도 임석재, 김태곤, 서대석 등에 의한 1차 자료 조사와¹²⁾ 학술논문이¹³⁾ 제출되면서 연구가 본격화되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리신화가 예술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한 사례로 강은교의 연작시와¹⁴⁾ 김진희의 희곡을¹⁵⁾ 들 수 있는데, 전통에 대한 관심이란 맥락에서

8) 정하영, 「고전문학사 기술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토지문화재단 엮음), 한길사, 2001.

9)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231면.

10)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영미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시작되었을 때 관련 저술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전통’이었다. 1985년 『노튼여성영문학선집』의 간행에서 편자들이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여성문학의 전통이라고 했다. 국내외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나타나는 전통 인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논문, 2004, 41~52면 참조.

11)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장덕순 외, 『한국구비문학선집』, 일조각, 1977.

12)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1965 ; 임석재, 『줄포무악』, 문화재관리국, 1970 ;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 1-4, 집문당, 1971·1976·1978·1980 ; 최정여·서대석 공편,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74. 현재까지 바리신화의 채록 및 번역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경하, 「서사무가 채록의 문제점과 번역의 가능성: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참조.

13) 김태곤 편,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 『계명논총』 8, 계명대학교, 1972 ;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14) 강은교, 「바리데기의 여행노래」, 『풀잎: 강은교 詩選』, 민음사, 1974.

좀 더 주목할 것은 연극 무대에 오른 바리신화이다.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70년대 연극계에서도 ‘전통’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전통예술의 현대적 계승’은 당시 연극계의 주요 이슈였고, 허규와 최인훈, 오태석 등이 그러한 흐름을 대표했다. 설화를 현대적으로 패러디한다든가 탈춤이나 꼭두각시놀음과 같은 전통연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실험이 두드러진 것이 70년대 연극계의 특징으로 지적된다.¹⁶⁾

연극계의 그러한 흐름은 70년대에 대학과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탈춤부흥운동과 마당극운동과도 관계가 있다. 1971년 3월 서울대 탈춤반에서 시작한 탈춤부흥운동은 4~5년 사이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회의식이 강한 대학생들이 주도한 이 문화운동은 탈춤에 대한 민중 중심의 민족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있었다.¹⁷⁾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라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실험과 함께 그에 대한 상반된 평가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국립극단 제93회 공연 「무녀도」(1979)¹⁸⁾는 ‘민족연극’의 수립을 목표로 70년대 연극계의 전통 담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허규의 연출작이다. 그가 연출을 맡았던 「허생전」(1970)은 전통 연희를 계승한 공연의 효시로 기록되는 작품이기도 하다.¹⁹⁾ 그런데 이상일은 무속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와 달콤한 감상주의를 자극하는 허규의 연출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문화계의 한 구석에는 우리다운 것 하면 무조건 그 뿌리를 무속에다 끌어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²⁰⁾ 이것은 비

15) 손진책 연출, 김진희 작, 「바리더기」, 국립극단 제107회 공연, 국립극장 소극장, 1983.3.9.~4.1.

16) 김윤정, 「주요 희곡과 연극 환경의 변화」, 『한국현대연극 100년: 공연사Ⅱ(1945~2008)』, 297~299면.

17) 이영미, 「전통예술의 현대적 계승과 마당극의 형성」, 『한국현대연극 100년: 공연사Ⅱ(1945~2008)』, 274~276면.

18) 원작 김동리, 각색 하유상, 연출 허규, 「무녀도」, 국립극장 소극장, 1979.9.4.~9.13.

19) 김미도, 「전통의 현대화, 뮤지컬의 형성」, 『한국현대연극 100년: 공연사Ⅱ(1945~2008)』, 241면.

20) 이상일, 「무속신앙의 달콤한 감상주의-국립극단의 <무녀도>」, 『한국연극의 문화형성력: 전통에서 실험으로, 실험에서 전통으로 1969-1999』, 눈빛, 2000, 166~167면. 이 글은 본래 『뿌리 깊은 나무』(1979년 11월)에 실렸다.

단 이 작품뿐 아니라 민족문화, 전통문화, 주체성 등의 구호를 내걸고 유행처럼 번지던 당시 문화운동의 경향 전반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바리신화를 소재로 한 첫 공연물 「바리더기」(1983)는 문화예술계의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다.²¹⁾ 작가와 연출자는 모두 연극 「바리더기」를 ‘버린 자와 버려진 자’의 구도 속에서 과거의 死靈祭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生靈祭로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국립극장장이었던 허규는 「바리더기」 공연이 민중의 소망과 고뇌와 갈등을 승화시킨 예술이기를 희망했다.²²⁾ 당시 평론계에서, 이 작품은 한국의 신화를 중심 소재로 썼을 뿐 아니라 굿이라는 형식까지 활용함으로써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적극적으로 실험한 사례로 평가되었고,²³⁾ ‘詩劇的 승화’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²⁴⁾

그러나 설화의 소박한 형식 속에 있는 일종의 ‘열려진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설화를 희곡으로 개작할 때의 관건이란 점에서 「바리더기」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고,²⁵⁾ ‘전통적인 몸짓, 소리, 색깔, 멜로디 등을 모두 한데 몰아넣은’ 연출로 인해 산만한 인상을 주고, 평면적인 서사 전개로 인해 소재의 극화를 잘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²⁶⁾ 단지 전통이라 내세울 만한 내용과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 곧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재창조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바리신화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민족’과 ‘민중’이라는 두 키워드를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 조선시대는 물론 20세기 전반까지도, 굿판에서 불리는 무당의 노래에 대한 당대인의 평가와 그 문학적 혹은 문화적 위상은 이른바

21) 연극 「바리더기」(1983)의 자세한 내용 분석은 홍원기, 「현대 연극에 나타난 바리데기 설화의 변용양상 연구」,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 석사논문, 2011, 28~52면 참조.

22) 「바리더기 팸플릿」, 국립극장, 1983.

23) “오랜 세월동안 한국민족에 뿌리박고 있는 ‘바리공주’의 설화를 굿이라는 형식의 틀 안에서 전개해 보임으로 해서 전통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전통의 현대화를 민중적 차원으로까지 넓혀보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넘쳐흐르는 이 작품은 앞으로 우리연극계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중추 과제를 성의 있게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양혜숙, 「올해의 첫 수확」, 『한국연극』, 1983년 4월호 공연평)

24) 이상일, 「바리데기 비판에 대한 반론」, 『한국연극』, 1983년 7월호.

25) 김방옥, 「위험한 설화의 희곡화-바리더기 공연을 보고」, 『동아일보』, 1983.3.17.

26) 서연호, 「(리뷰)극과 놀이의 이완된 구조」, 『한국연극』, 1983년 4월호 ; 서연호, 「바리더기」, 『80년대 연극평론 자료집(I)』, 한국연극평론가협회, 1991, 161~162면.

고전이나 정전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런데 바리신화에 내재한 민족적·민중적 가치들이 70~80년대 한국 사회의 관심과 맞아떨어지면서, 계승하고 재창조할 만한 전통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수 세기 동안 무가치하다고 천대받던 고풍의 이야기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한국을 대표하는 신화’라는 위상을 향해 일대 도약을 시작한 것이다.

2.2. 페미니즘과의 만남

바리신화가 고전의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회적 맥락은 1980~90년대 페미니즘의 유행이다. 학계 안팎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던 이 시기에, 바리신화에 대한 페미니즘 독해와 재창작이 다각도로 시도되었다. 그것은 바리신화에 내재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었다.

1980년대는 서구 페미니즘 이론이 수입되고 그 지향을 공유하는 각종 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여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고, 84년에 한국여성학회가 창립되었으며, 한국여성개발원(1983)과 여성정책심의회(1983) 등 여성문제를 논의하는 국가기관이 설립되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여성』, 『또 하나의 문화』, 『여성운동과 문학』, 『여성과 문학』, 『여성과 사회』 등 학술문화 잡지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려는 학술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1980년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 문학 관련 잡지에 페미니즘 문학이 특집으로 기획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여성문학학회(1998)와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2000)의 창립은 페미니즘 문학연구가 제도권 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²⁷⁾

이 시기의 페미니즘 문학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남성작가의 문학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시 읽기, 둘째, 여성해방적 지

27) 80~90년대에 페미니즘과 여성문학 논의가 확산되는 보다 상세한 경과는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8~19면 참조.

향성을 갖는 ‘진정한’²⁸⁾ 여성문학에 관한 논의, 셋째, 여성작가문학의 역사 혹은 여성적 글쓰기의 정체를 밝히려는 경향이다. 이 세 방향의 페미니즘 문학 연구는 80년대 여성해방 잡지에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리신화 연구는 김태곤과 서대석의 초기 연구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 이 텍스트의 무가 혹은 신화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주인공의 성격을 巫祖神 혹은 저승신, 영웅이란 측면에서 파악한 연구들과 달리 주인공의 ‘여성’이란 조건에 좀 더 주목했던 강은혜의 경우에도, ‘바리데기’라는 命名에서 드러나는 ‘철저한 타자의 이미지’에 주목하고는 있지만,²⁹⁾ 바리신화 형성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페미니즘 독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와 여성의 삶의 조건에 주목하여 바리신화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변화는 90년대 중반 이후 가시화된다.

김영숙이 전면에 내세웠던 ‘여성중심 시각은 여성의 숨죽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당한 자리매김을 해주기 위한 독해였다.’³⁰⁾ 김영숙은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바리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중국에는 영혼의 인도자가 되는 바리의 모습에서 聖母의 모습을 읽어낸다.³¹⁾ 여성이란 조건에 특히 주목하는 이후의 바리신화 연구는 대개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리신화에 내재한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방의 가능성’은 페미니즘 문학 연구의 두 번째 노선이 지향했던 여성해방문학의 전형이었다.

바리신화는 ‘여성에 의한 문학’이란 측면에서도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리신화가 바로 여성중심의 문화인 무속의 신화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데, 이 점에 주목하여 바리신화가 내용면에서

28) 당시에 진행된 페미니즘 문학 논의를 보면 용어 사용에 혼선이 있었다. ‘여성문학’이란 용어 사용의 실재를 보면 ‘여성작가문학’과 ‘여성해방문학’이란 뜻이 혼재해 있는데, 여성해방문학을 가리킬 때는 ‘진정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흔했다. (앞의 논문, 20면)

29) 강은혜, 「바리데기 형성의 신화·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1, 계명어문학회, 1984, 54면. 강은혜의 「한국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한국학논집』 17, 계명대학교, 1990)은 앞 논문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30) 김영숙,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국어문학』 31, 국어문학회, 1996, 74면.

31) 위의 논문, 88~89면.

나 형식면에서나 대표적인 고전여성문학임을 주장한 것이 이경하의 석사는 문이다.³²⁾ ‘무속신화’로만 분류되었던 바리신화를 ‘여성문학’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훗날 김혜순이 여성주의 시론을 전개하면서 ‘여성시인의 화산’을 바리데기에서 찾았던 것 역시, 굿판에서 불리던 바리신화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여성문학의 깊은 뿌리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바리데기’ 속에서 다른 신화 텍스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비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가시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위치를 새롭게 차지한 한 여성시인의 화산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나는 지금 이 시대, 여성주의적 사유를 하는 여성시인들의 시에서 발견되는 샤먼적 주술 혹은 응시의 공간, 시선, 리듬, 문체에서 무가적 요소를 많이 읽어왔다. 더구나 나는 여성들의 텍스트를 접할 때마다 여성들의 내면 깊이에서 메아리쳐오는 그 버려진 여자아이의 구슬픈 목소리를 들어왔다.”³³⁾

김혜순은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몸으로 시 쓰기’를 실험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이성적 예술형식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시인이다.³⁴⁾ 그는 여성적 글쓰기를 ‘몸으로 시 쓰기’로 명명하고, 그 원형을 무당의 노래 바리신화에서 찾고 있다.

요컨대, 바리신화가 고전의 후보에 오르게 된 데는 페미니즘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리신화는 페미니즘 문학연구를 통해 새로운 고전적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리신화의 여러 측면이 페미니즘의 화두와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된 존재로서의 여

32) 이경하는 바리신화가 여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여성의 경험을 표현하고, 여성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규명하는 한편, 전근대 사회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여성적 가치,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서사무가였음을 주장하였다.(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97)

33)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너』, 문학동네, 2002, 6면, 34면.

34) 김향라, 「한국 현대 페미니즘시 연구: 고정희·최승자·김혜순의 시를 중심으로」, 경성대 박사논문, 2010.

주인공, 중국에는 해방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버려진 딸의 서사, 그리고 집단적 여성 서발턴의 목소리라 할 만한 무가라는 형식. 이러한 조건들이 페미니즘과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그 가치를 재평가 받게 된 것이다.

3. 고전으로서의 위상 강화 배경

3.1. 교과서 수록의 영향

20세기 후반에 한국의 전통과 민중문화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속에서 바리신화는 사회운동, 예술창작, 학술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졌다. 앞서 거론한 두 가지 사회적 맥락, 즉 전통에 대한 관심과 페미니즘의 열기는 각각 출발지점이 달랐지만 90년대에 오면 서로 뒤섞이면서, 바리신화를 소재로 한 출판물과 공연물이 거듭 시도되고 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바리신화의 고전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계기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전후한 바리신화의 국어 교과서 수록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흥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계기들을 통해 바리신화는 한국적 전통을 보여주는 고전으로서 과거성과 함께 현재성까지 확보하게 된다. 먼저 세 번째 맥락, 즉 '제7차 교육과정 중2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이 바리신화의 고전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제7차 교육과정은³⁵⁾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에 고시되고, 적용연도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되었다. 중학교를 기준으로 말하면, 2001년 1학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교과서를 배우기 시작했다. 즉 2002년부터 학교의 제도교육에서 바리신화를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³⁶⁾

35)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으로 삼아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11, 12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10년간의 공통 교육기간, 2년간의 선택 교육기간을 설정하였다.

교과서 수록은 바리신화가 한국의 고전 혹은 정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었음을 뜻하는데, 여기서 잠시 교과서와 정전의 관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문학 정전의 위상과 그에 관한 논의의 배경이 서양과 우리가 다름을 감안한다 해도, 근대 이후 한국의 제도교육에서 국어나 문학 교과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쳐온 작품과 작가 목록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³⁷⁾

우리에게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목록”³⁸⁾이 있고, 그것을 준정전이라 부르건 의사정전이라 부르건, 여러 세대를 거쳐 그 가치가 전승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표 고전 작품’으로서의 문학 정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더 좋아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것의 가치와 권위를 암묵적으로 수용한다는 실험 보고는³⁹⁾ 문학 정전의 형성과 그 권위의 재생산에 있어서 교과서 수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정전의 가치가 그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기보다 정치적, 문화적 체계 모니를 가진 집단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한국 국어교육의 역사에서도 역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에는 좌우 합작 노선을 지향하는 국어 교과서가 편찬되었지만,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는 우익 중심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교과서 편찬에도 깊숙이 개입한다.⁴⁰⁾ 한국 근대문학의 정전이 순수시와 민족시 중심으로 구성된 것 역시 해방 공간에서 시문학과와 문장파가 문단의 체계모니를 장악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⁴¹⁾ ‘민족’ 문학에 대한 선호는 고전 작품을 선택할

36)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 작품 목록을 비교하면, 6차에는 겨우 민요 1편이 실린 데 반해서, 7차에는 설화, 민요, 무가 등 15편이 수록되어 있다.(김창수,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구비문학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선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2~23면)

37) 윤여탁, 「한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그 역사와 의미」, 『정전(正典)』(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 역락, 2010, 49~50면.

38) 조희정, 「고전 정전의 재검토-해방 이후 초,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전』, 189면.

39) 최지현, 「문학교육에서 정전과 학습자의 정서체험이 갖는 위계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정전』, 126면.

40) 윤여탁, 앞의 책, 56면.

41)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6, 21~58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성작의 ‘국문’ 실기가 해방 직후에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46년 중등부 국어 교과서 편수관이었고 국문학 자료 정리 사업에 앞장섰던 이병기는 <한중록>과 <계축일기>를 “우리 산문문학의 최고봉”으로, <동명일기>를 “천하의 名文”으로 평가한바 있는데, 이 관점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20세기말까지 유지되었다.⁴²⁾

정전 목록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5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지용, 김기림, 이용악 등 해금작가들의 작품,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까지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채택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순수문학과 저항문학에 대한 선호는 7차 교육과정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⁴³⁾ 고전 산문 가운데 <훈민정음>·<춘향가(열녀춘향수절가)>·<심정전>은 건국 과도기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록되었고, 그밖에도 <별주부전>·<구운몽>·<조침문>·<규중칠우쟁론기>·<동명일기>·<봉산탈춤>과 <삼국사기>·<삼국유사> 소재 설화 등이 꾸준히 채택되어 정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된다.⁴⁴⁾

그러나 문학 정전의 목록은 종교 정전과 달라서 보다 가변적이다. 교과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는 표본적인 교재”인 만큼,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재의 선택이 바뀔 수 있다. 또한 당대의 지배적 담론과 끊임없이 호응하면서, 비록 그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한다. 바리신화의 국어 교과서 수록은,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7차 교육과정 개편 무렵까지, 한국적 전통에 대한 각계의 탐색과 페미니즘의 사회적 확산이 맺은 결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수록 이후에 교육학 분야에서 바리신화 연구논문이 쏟아졌는데, 고전물(서사무가)과 현대물(재창작된 바리신화) 모두가 대상이었다. 설화 교육, 글쓰기 교육,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문학치료 등 제반 영역에서, 바

42)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45면.

43) 최지현, 앞의 책, 121면.

44) 조희정, 앞의 책, 200면. 해방 이후 중등 및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자료의 목록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조희정,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 조희정·서명희,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1)」, 『문학교육학』 19, 2006 ; 조희정·서명희,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2)」,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6.

리신화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방법에 관한 논문이 제출되었다. 예를 들면, 이야기의 흥미성, 문학의 효용성, 도덕적 가치규범 등의 기준에서 바리신화의 교육적 가치를 규명하는 논문,⁴⁵⁾ 바리신화가 ‘죽음에 대한 상상적 이해의 문학이란 점에서 그 효용성을 밝히고자 한 논문,⁴⁶⁾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바리신화의 활용 방법을 제시한 논문,⁴⁷⁾ 중2 학생들이 신문기사와 만화, TV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직접 바리신화의 재창작을 시도한 수업에 관한 보고,⁴⁸⁾ 바리신화를 이용한 중학교 여학생의 문학치료 사례를 보고한 논문,⁴⁹⁾ 바리신화 독서를 통해 자아정체감 향상을 도모하는 자기서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상담심리 분야의 논문⁵⁰⁾ 등등, 바리신화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관점과 방법이 다양하다.

바리신화를 다루는 교육학 분야의 논문들은 대개의 경우 민속학이나 고전문학 분야와는 접근법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른바 ‘학술적’ 가치는 적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논문들은 실제로 바리신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현장의 보고라는 점에서, 그곳이 태곳적 이야기 ‘신화’에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를 살게 하는 현장이란 점에서 흥미롭다. 학생들의 바리신화 재창작 경험은 자칫 고리타분하게 여길 수 있는 고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⁵¹⁾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나 상담심리 사례는 ‘버려진 딸 바리의 이야기를 현재에도 유의미한 신화로 기능하게 한다.

바리신화의 교과서 수록은 고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면

45) 최유권,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46) 황윤경, 「상상적 이해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10.

47) 류소옥, 「<바리데기>를 통한 서사 중심 한국어 교육 연구-중국 서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건국대 석사논문, 2010.

48) 김현숙,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재창조 교육 방법 연구: 무속신화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2004.

49)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

50) 이지영, 「<바리공주> 설화를 통한 자기서사가 고등학교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51) 김현숙, 앞의 논문.

서, 동시에 고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의 개인차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획일적 교육을 지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⁵²⁾ 2007년 개정 이후로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교과서 정책이 변화된 만큼, 국어 교과서에 어떤 작품을 실을 것인지 선택하는 기준이나 영향력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⁵³⁾ 그러나 교과서가 여전히 후속세대에게 유의미한 ‘고전목록’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002년 이전에 중등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단군신화나 주몽신화는 알아도 바리신화를 모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고전목록에는 바리신화가 없기 때문이다.

3.2.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대

바리신화의 고전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네 번째 맥락은 21세기 초에 거세게 불어 닥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산업의 바람이다. 디지털 문명, 문화산업의 시대에 고전의 현대적 변용과 전통의 재창조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는데, 그 바람의 중심에 바리신화가 있다.

2001년 8월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9년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설되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유산, 생활양식, 창의적 아이디어, 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⁵⁴⁾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One Source Multi Use(OSMU)’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을 극대화한다.

52) 천경록,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009, 54면.

53)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 텍스트가 종전에 누렸던 정전으로서의 위상은 약화되었다고 보아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 편찬자들은 텍스트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여전히 “인류와 민족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정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 검인정 교과서의 검정 기준에 관해서는 이성영, 「국어 교과서 정책」,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009, 82면 참조.

54) 한국행정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2007, 161면.

OSMU란, <아기공룡 둘리>·<뽀롱뽀롱 뽀로로>의 예에서 보듯이,⁵⁵⁾ 하나의 원천콘텐츠를 “영화·게임·음반·애니메이션·캐릭터·상품·장난감·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⁵⁶⁾이다. 여기서 원천콘텐츠는 이미 대중성을 검증 받아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콘텐츠⁵⁷⁾를 가리킨다. 문화산업이 문화적·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OSMU의 원리에 부합하는 활용 가능성 높은 원천콘텐츠의 개발은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이유에서, 2002년부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을 기획하여 고전문학을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간주하고 원천콘텐츠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시작하였다. 고전문학이 어느 날 갑자기 첨단 멀티미디어 문화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것이다.⁵⁸⁾

그렇다면, 원천콘텐츠로서 바리신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원천콘텐츠는 OSMU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출판·영상·공연 콘텐츠로 가공되는데, 바리신화는 콘텐츠나 문화원형 사업이란 말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현대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영감을 주는 소재로 선호되고 있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재창조의 취지 아래 만들어진 연극 「바리더기」(1983)는 바리신화가 공연콘텐츠로 재창조된 사례이다. 그 이후에도 바리신화를 이용한 공연콘텐츠 제작이 연극과 뮤지컬,⁵⁹⁾ 발레, 창작 판소리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무대에 올랐던

55) <아기공룡 둘리>는 연재만화로 시작하여 만화단행본, TV 애니메이션, 극장 애니메이션, 뮤지컬, 완구, 가전제품, CF 모델 등 2000여 개의 품목에 걸쳐 캐릭터가 활용되면서 연간 20억 원에 이르는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OSMU를 적극 활용한 결과 완구, 출판, DVD 등의 매출액이 1800억 원에 달하고, TV 애니메이션은 현재 82개국에서 상영되고 있다.(서동원, 「문화콘텐츠 OSMU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 연구: 원천콘텐츠 ‘바리공주’의 영상매체전환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서강대 영상대학원 석사논문, 2010, 10면)

56) 서동원, 앞의 논문, 8면.

57) 박기수, 「문화콘텐츠 정전 구성을 위한 시론」, 『정전』, 297~298면.

58)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21면. 신동훈은 이 논문에서 21세기 문화콘텐츠 바람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고전문학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59) 재창작된 연극과 뮤지컬 각각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윤희,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현대극 수용양상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4; 홍원기, 앞의 논문.

사례만 들면 다음과 같다.⁶⁰⁾

김진희 작, 손진책 연출, 연극 「바리데기」 (1983)

송선호 작·연출, 연극 「바리데기」 (1992)

조광화 작, 김광보 연출, 연극 「꽃뱀이 나더러 다리를 감아보자 하여」 (1995)

극단 현장 작, 박인배 연출, 마당극 「21세기 도시는 들풀이 무성하게 자라 들꽃 피는 도시가 되리라」 (1997)

박용구 작·연출, 최태지 안무, 발레 「바리」 (1998)

홍원기 작, 김정숙 각색, 뮤지컬 「바리-잊혀진 자장가」 (1999)

김경원 작·연출, 연극 「밀레니엄 베이비 바리데기」 (1999·2000)

김명곤 각색, 뮤지컬 「우루왕」 (2000)

우봉규 작, 김일우 연출, 연극 「바리공주」 (2001)

홍원기 작, 이기도 연출, 연극 「에비대왕」 (2002)

김수형 사설, 조정희 소리, 판소리 모노드라마 「바리데기 바리공주」 (2009)

바리신화가 출판콘텐츠로 제작된 사례는 양적으로 보면 동화가 월등히 많다. 90년대 초반부터 2009년까지 모두 21편으로, 90년대에도 10편이나 출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화의 편수가 많은 것은 바리신화의 재창작에 대한 특별한 작가의식 때문이라기보다,⁶¹⁾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책의 수요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동화책 출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즉 90년대에 어린이용 도서 시장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독서문화운동이 전개되었던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⁶²⁾

60) 박용구의 「바리-이승편」 (1994)과 「바리-저승편」 (2001), 장진영의 「바리데기」 (2001), 김수미의 「바리」 (2002) 등은 무대에 오르지 않은 희곡이다.

61) 바리신화를 소재로 한 동화 창작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창작의 모본이 되는 원전이 불투명한 점, 작가가 바리신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무속적 상상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박현숙,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을 통한 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 석사논문, 2001;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무속신화의 동화화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동화와 번역』 2,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1; 마성은,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동화화할 때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 『아동청소년문학연구』 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

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는 독서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2003년부터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되고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용 도서 시장은 출판계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위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리신화가 동화의 형태로 거듭거듭 재창작되는 요인이기도 하다.⁶³⁾

바리신화를 원천으로 한 출판콘텐츠 가운데 소설로는 송경아의 ‘바리 3부작’,⁶⁴⁾ 김선우의 ‘어른을 위한 동화’,⁶⁵⁾ 황석영의 장편⁶⁶⁾ 등이 있다. 황석영은 세계 난민과 다문화사회의 문제 등 세기말적 징후에 대한 해결책을 전통서사 바리데기에서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⁶⁷⁾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여주인공이 여전히 남성의 존적인 존재로 설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⁶⁸⁾ 또한 서사무가 형식의 차용이라는 서사적 실험으로 오히려 리얼리즘을 퇴행시켰다고 평가된바 있다.⁶⁹⁾

공연콘텐츠나 출판콘텐츠 외에, 바리신화는 TV 드라마,⁷⁰⁾ 애니메이션,⁷¹⁾

-
- 62) 1990년대는 어린이책을 다루는 출판사와 전문서점이 급속하게 많아진 점, 독서단체들의 독서운동이 전개되면서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도 활발해졌다는 점, 열린교육을 지향하면서 폭넓은 독서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어린이용 도서 시장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신종락, 「어린이책 출판동향에 관한 연구: 출판 유통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56, 한국출판학회, 2009, 216~220면)
- 63) 바리신화는 만화로도 제작되었다. 윤태호, 『영혼의 신 바리공주』, 한겨레출판사, 2006; 신웅, 『별이 된 바리공주』, 해피아이, 2008.
- 64) 송경아, 「바리-길 위에서」, 『책』, 민음사, 1996; 송경아, 「바리-불꽃」·「바리-동수자」·「바리-돌아오다」, 『엘리베이터』, 문학동네, 1998.
- 65) 김선우 지음, 정경심 그림, 『바리공주』, 열림원, 2003.
- 66)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 67) 박정근, 「디아스포라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바리데기적 비전: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차민기, 「“바리 서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 고찰: <바리공주>와 소설 <바리데기>에 나타난 “여성성”과 “연대” 의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 68) 조경은,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고전문학의 변용 연구: <심청, 연꽃의 길>과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 69) 권성우, 「서사의 창조적 갱신과 리얼리즘의 퇴행 사이: 황석영의 <바리데기>론」, 『한민족문화연구』 24, 한민족문화학회, 2008.
- 70) 정경아 대본, KBS 전설의 고향 「바리데기」, 1996.
- 71) 장선우 감독, 애니메이션 「바리데기」, 2002; 마고21, 애니메이션 「바리데기」, 2008. 관련 논문은 채영희, 「바리공주 무가의 애니메이션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가능성 모색」, 『동

게임⁷²⁾ 등 영상콘텐츠로도 제작되었다. 이처럼 바리신화는 OSMU를 위한 원천콘텐츠에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고전이다. 그 이유는 바리신화가 무속 신화라는 ‘한국 문화원형’에 속하는 동시에, 사후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환상성 짙은 서사가 ‘글로벌 문화원형’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여성영웅의 일대기와 모험담 역시 스토리 구조 구성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⁷³⁾

그리고 보다 중요한 요인은 바리신화에 담긴 ‘삶의 철학’이 갖는 인류보편적 가치일 것이다. 신동훈은 그것을 ‘우주자연과의 원초적 소통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통찰’이자 ‘상처의 근원적 치유와 낙원의 추구’라고 했다.⁷⁴⁾ 바리신화를 원천으로 제작된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바리신화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진수를 담아내는 것이 관건일 터인데,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고전’이나 ‘정전’은 자칫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재 차원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 자본과 기술, 제도와 권력이 문화를 지배하는 시대에, 콘텐츠의 재료만 있고 핵심 가치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비판적 성찰에⁷⁵⁾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바리신화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문예사회학적 고찰이다. 최하층인 무당이 부르고 일반 백성이 향유했던 바리신화가 20세기 후반에 대표적인 한국 신화로 재평가된 현상은 하나의 텍스트가 한 사회의 가치 있는 고전으로

북아문화연구』 1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72) (주)nhn 제작, 온라인 플래시 게임, 「바리공주의 전설-지옥의 생명수」(2007), 「바리공주의 전설-왕의 부활」(2008) 관련 논문은 김윤경, 「중학교 게임미디어교육을 위한 게임시나리오 제작 프로젝트 교수·학습 설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모형에 따른 바리데기 어드벤처 게임시나리오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2010.

73) 국내외 성공적인 OSMU의 사례를 보면 환상성이 짙은 신화와 전설이 원천콘텐츠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바람의 나라>가 호동왕자 낙랑공주 설화를 기반으로, <반지의 제왕>이 중세 유럽의 신화 전설을 기반으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서동원, 앞의논문, 61~62면)

74)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128~131면.

75) 위의 논문, 123~124면.

구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바리신화에 내재한 어떠한 요소가 어떤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이었다.

바리신화 고전화의 추이를 정리하자면, 첫째, 1960~70년대에 한국적 전통과 민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무가와 같은 구비문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둘째, 1980~90년대에 강하게 불었던 페미니즘의 열기 속에서, 바리신화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학계와 예술계에서 동시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여주인공이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된 존재를 상징한다는 점, 무가치하다고 버려진 딸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 그리고 굿과 무가라는 여성 젠더화된 문화형식. 바리신화가 갖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페미니즘과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재독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문화전통에 대한 관심 속에 서사무가가 우리의 신화로 재평가되고, 페미니즘의 사회적 확산 속에서 바리신화에 내재한 여성주의 시선이 재해석되었는데, 이는 바로 바리신화라는 텍스트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바리신화는 중2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이는 바리신화의 고전적 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인 동시에 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초 문화콘텐츠산업의 흥기 또한 고전으로서 바리신화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바리신화는 단지 옛날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출판·공연·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21세기에 대중적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이로써 바리신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재발견되고 고전으로서의 지위도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족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20세기 말에 학계에서나 예술계에서 바리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재창조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는,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시대적 특수성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 신화는 병든 아버지의 왕국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자가 바로 버려진 딸과 같은 소외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과거 문명에 대한 진단이면서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다. 짧은 기간에 갑자기 크게 주목

받고 유명해진 만큼, 바리신화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 되지는 않는다. 바리신화를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사무가라는 장르의 특성에 기반한 텍스트의 정본화 작업과 아울러, 이 신화에 내재한 가치와 특질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송 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민음사, 1997.
 신동훈, 『살아 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 2004.
 이상일, 『한국 연극의 문화형성력』, 눈빛, 2000.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엮음, 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 『정진』, 역락, 2010.
 한국연극협회 편, 『한국현대연극 100년: 공연사Ⅱ(1945~2008)』, 연극과인간, 2008.

2. 논문

- 강은혜, 「바리데기 형성의 신화·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1, 계명어문학회, 1984, 53~73면.
 김영숙, 「여성중심 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국어문학』 31, 국어문학회, 1996, 73~91면.
 김윤희,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현대극 수용양상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4, 1~130면.
 김현숙,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재창조 교육 방법 연구: 무속신화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건국대 석사논문, 2004, 1~127면.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무속신화의 동화화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동화와 번역』 2,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1, 33~76면.
 마성은,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동화화 할 때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 『아동청소년문학연구』 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 175~197면.
 서동원, 「문화콘텐츠 OSMU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 연구: 원천콘텐츠 ‘바리공주’의 영상매체전환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서강대 영상대학원 석사논문, 2010, 1~91면.
 신동훈,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자본과 욕망의 시대, 존재와 가치의 근원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

- 회, 2011, 117~146면.
- 신종락, 「어린이책 출판동향에 관한 연구: 출판 유통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56, 한국출판학회, 2009, 215~235면.
-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97, 1~123면.
- _____,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논문, 2004, 1~161면.
- _____, 「서사무가 채록의 문제점과 번역의 가능성: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97~115면.
- 이성영, 「국어 교과서 정책」,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009, 71~98면.
- 조희정,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77~326면.
- 천경록,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009, 41~69면.
- 홍원기, 「현대 연극에 나타난 바리데기 설화의 변용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1, 1~101면.

The Social Context of the Canonization of the *Princess Bari* Epic

Lee, Kyungha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he *Princess Bari* epic came to be regarded as a canonical epic text representative of Korea. The way in which this shamanistic epic was reexamined to become one of the representative myths of Korea aptly illustrates how a text is established as a canonical work within society. This process involves the rediscovery and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ertain elements of the text within the give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canonization process of the *Princess Bari* myth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The first phase, dating to the 1960~70s, witnessed the intensive study of oral literature and shamanistic epics amidst the widening social interest in traditional folk culture. In the second phase, dating to the 1980~90s, active attempts to reinterpret the *Princess Bari* myth took place within both the academic and arts communities, particularly amidst a heated interest in feminism. The fact that the heroine is an oppressed being within a patriarchal society, the fact that it is a worthless and abandoned daughter that is considered to be the only being that can heal an unwell society, and the fact that *gut* rituals and shamanistic epics are female gendered cultural forms all came to be actively reconsidered and imbued with meaning as a result of the feminist influence.

In the third phase, the *Princess Bari* myth came to be included in Korean literature textbooks according t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This was due to the spread of feminism within society, as well as the result of the academic community's continued research into the literary traditions of Korea. The inclusion of the *Princess Bari* myth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was an acknowledge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myth as a canonical text, as well as an event which acted to reproduce its importance as such a classic. Final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Princess Bari* myth has come to be widely consumed by the public following its active representation in various forms, such as publishing, theatre and film, following the flourishing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Keywords : *Princess Bari*, Canonical text, Tradition, Feminism, National curriculum, Cultural contents

접수일자: 2012. 8. 31

심사기간: 2012. 8. 31~2012. 11. 20

게재결정: 2012. 11. 20